

‘마귀홈장’ 사수에 사활 건 연변팀, 홈 6连胜으로 축포

— 과정은 힘들었지만 지켜낸 승리는 ‘달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종료 직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는 결국 연변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1만명 넘는 관중이 지켜본 가운데 연변팀은 홈에서 또 한번 승리의 축포를 쏘아올렸다.

6월 22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진행된 2025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아팀(이하 ‘연변팀’)은 광서평과팀(이하 ‘광서팀’)에 1대0 승리를 거두며 기대를 모았던 홈장 6连胜을 제대로 장식했다.

홈에서도, 원정에서도 좋은 기운을 이어가고 있는 연변팀은 이날 4-4-2 전형을 가동했다. 호재겸, 서계조, 왕봉, 리세빈으로 수비선을 구축했고 리룡, 도밍구스, 박세호, 김태연이 중원에 포진되었으며 포부스와 음바가 투톱으로 최전방에 나섰다. 키퍼 장갑은 구가호가 꼈다.

외국인 선수 3명이 일제히 선발로 출전한 가운데 며칠전 영입을 공식 발표한 중국 향향적 선수 라오 리에스는 잠시 대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한편 역시 4-4-2 전형으로 맞선 광서팀의 선발 명단에는 일찍 연변팀에서 뛴 적 있는 양경범과 황위가 포함되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두 팀은 탐색전 없이 강하게 몰아붙였다. 중원 주도권 쟁탈이 본격화된 가운데 연변팀은 중앙과 측면을 활용한 공 전개로 활로를 모색했다.

이런 흐름을 타고 3분 만에 포부스의 첫 슈팅이 나왔고 4분 만에 재차 슈팅을 날려 직전의 아쉬움을 씻는 선제골을 기어코 성공시키 고야 말았다.

음바의 적극적인 전방 압박이 빛을 발했다. 상대 두 수비수 사이의 패스 실수를 끈질기게 파고들어 공 탈취에 성공한 음바가 문전에 침투해 있던 포부스에게 패스를 넘겼고 상대 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포부스가 침착하게 슛을 날렸던 것이다. 공이 키퍼를 넘어 골망을 가르며 연변팀은 경기 시작 5분도 안되어 일찌감치 1대0으로 앞서갔다.

뒤이어 초반 9분경에는 또 박세호가 오른쪽 측면에서 질주하며 문전으로 찔러준 공이 음바의 발끝에 걸리나 싶었는데 골로 연결되지 못했다.

선제골로 기선제압에 성공한 연변팀은 전방위적인 파상공세를 펼치며 광서팀의 골문을 수시로 위협했다.

광서팀도 라인을 올린 연변팀의 틈을 노려 역습을 시도하는 듯 보였으나 연변팀의 수비벽에 막히고 구가호의 선방에 끊기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연변팀의 양쪽 측면이 활발하게 가동되며 기세가 가열되었고 수세에 몰린 광서팀은 34분경에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반전의 시간이 과반을 넘어가며 초반의 치열했던 분위기가 차츰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두 팀은 상호 공격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서로의 빈틈을 엿봤다.

전반전 추가 시간이 4분 주어졌고 연변팀은 2연속 코너킥으로 끝내기 직전까지 추가골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후반전을 연변팀은 선수 교체 없이 진행했다.

한풀 뉘진 광서팀이 공격에 발동을 걸었고 연변팀은 라인을 맞춰가며 안정적으로 대처했다.

49분경 절묘한 패스가 오가던 와중에 김태연이 때린 슈팅이 상대 키퍼에 막혔으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

54분경 광서팀은 양경범을 교체했다. 더

불어 연변팀 문전을 휘저으며 혼전을 조성하는 광서팀의 반격에 맞서 64분경 연변팀도 이날 경기의 첫 교체 카드를 썼다. 허문광으로 리세빈을, 리강으로 음바를 교체하는 등 동시에 2장의 카드를 내보이며 반전을 꾀했다.

그러나 광서팀의 기세가 한번 또 한번 날카롭게 살아나며 경기 흐름은 팽팽하게 이어졌다. 63분경에 포부스의 헤딩골이 골대를 강타하며 튕겨나온 절호의 기회를 제외하고 연변팀은 그렇다 할 득점 찬스를 창출하지 못했다.

반면 광서팀은 공격 포인트를 부지런히 쌓기 시작했고 광서팀의 거센 공세에 72분경 연변팀은 재차 교체 카드를 활용했다. 김태연을 빼고 리석민을 투입했다.

80분이 넘어가면서 지키려는 자와 추격하려는 자가 맞붙어 불꽃이 튀었고 광서팀은 또 한번 교체 카드를 쓰는 등 연변팀을

몰아붙였다.

연변팀은 전반전과 달리 수비벽을 촘촘하게 치면서 지키기에 박차를 가했다. 87분경 연변팀은 박세호를 빼고 전창걸을 출전시키며 ‘점수 사수’에 최선을 다했다.

90분경 상대 문전에서의 혼전을 틈타 도밍구스가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대 옆 그물을 치며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추가 시간이 10분이나 주어지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광서팀은 코너킥 기회에 키퍼까지 우리 팀 문전으로 몰려오는 등 동점골에 사활을 걸었다.

종료 직전까지 광서팀이 한번 또 한번 코너킥을 쟁취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에서 최종 연변팀이 1대0 승리를 가져갔다.

진담승이었지만 홈장 6连胜을 달성한 연변팀은 6월 29일에는 남동지운팀을 안방에 불러들여 홈 7连胜에 도전한다.

/ 김가혜 김파 기자

경기후

왕봉

“우리는 감독님을 믿는다”

대광서평과전 경기를 마친 뒤 공동취재구역에서 연변팀의 주장 왕봉이 또 한번 취재를 받았다.



“오늘 팀이 홈장 6连胜을 달성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좋은 컨디션을 그냥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왕봉은 “감독님의 요구에 따라 매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훈련”을 언급하면서 “감독님을 완전히 믿고 신임한다. 감독님이 요구한 대로 훈련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팀의 단단한 결속력을 드러냈다.

/ 김가혜기자

감독초대석

이기형 감독 “连胜 기세 이어 원정 승리 쟁취할 터”

6월 22일 오후 3시, 연변룡정커시아팀은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에서 광서평과팀을 1대0으로 이기면서 홈장 6连胜을 달성했다.



경기후 있는 기자회견에서 연변룡정커시아팀 이기형 감독은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생각처럼 어려운 경기였으나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해주었다.”며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홈에서 6连胜을 했는데 원정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다. 앞으로连胜의 기세를 이어 원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원정승에 대한 기대를 표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선수들이 끝까지 한끝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건 경기장을 찾아온 많은 팬들의 성원 덕분에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감사하겠다.”며 많은 응원을 부탁했다.

/ 김파기자



[포토 포커스]

왕봉의 100 경기 ‘대기록’

승리를 지켜냈고 홈장 6连胜을 달성했다. 연변팀은 대광서평과전에서 비록 1대0으로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원했던 결과물을 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과 함께 회자된 이슈는 바로 왕봉의 연변팀 통산 100경기 소식이다.

연변팀은 이날 경기에 앞서 주장 왕봉을 위해 100경기 기념식을 진행했다. 왕봉은 2018 시즌과 2023 시즌, 2024 시즌을 거쳐 올 시즌 지금까지 연변팀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는 주력 선수이다. 이 기간 그는 부상이나 경고 루적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기를 선발로 출전했고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에 기여했다.

/ 글 김가혜기자 / 사진 김파기자

2025 블랙야크·연변 100 국제 트레일러닝대회 성황리에



21일, 연변조선족자치주체육국과 연길시, 룡정시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블랙야크 연변 100 국제 트레일러닝대회(越野赛)가 연길공룡박물관 북문 광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50킬로미터, 30킬로미터, 15킬로미터, 5킬로미터(가족) 등 네가지 코스로 진행, 전국 각지에서 모인 1,400여명의 트레일러닝 애호가들이 연변의 아름다운 산과 수려한 자연 그리고 깊은 인문학적 정취를 느끼며 트레일러닝 러정을 시작했다.

오전 8시 정각, 우량한 출발 신호와 함께 1,400여명의 트레일러닝 애호가들이 차례로 경기를 시작했다. 이번 대회는 연길과 룡정 두 도시를 지나며 연길공룡박물관, 모아산국가삼림공원, 룡정장린백세스포츠휴일풍경구 등 독특한 자연 및 인문 유적지를 코스로 연결했다.

트레일러닝 참가자들은 대회를 빌어 연길공룡박물관에서 태고의 신비를 느끼고 모아산

국가삼림공원의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룡정 산수의 고요함과 량전백세의 활기를 동시에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항상 연변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 와 느껴볼 기회가 없었다. 이번엔 마침 대회가 있어서 가족과 함께 직접 경험해봤는데 연변은 산 좋고 물 맑고 공기도 상쾌하며 정말 독특한 매력을 지닌 곳인 것 같다.”

하남성에서 온 올해 58세의 단위당은 두달 전부터 연변대회를 준비했고 이번엔 안해와 함께 연변을 찾았다. 이들 부부는 대회가 끝난 뒤에도 며칠 동안 연변에서 머물며 러정을 할 예정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연변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스포츠 행사일 뿐만 아니라 연변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민속문화를 홍보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 종합 / 사진 연길뉴스넷